

|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실 |

Weekly

vol. 184 2026. 7. 3

# TGIF

Trend, Geopolitical, Indicators on Fridays

Week Ahead Economic Events and Schedule

Chart of the Week - Macro & Bond

Global Monitor - Macro & Bond & FX

경제/환율  
최광혁  
kh.choi@ls-sec.co.kr



채권  
Analyst 우혜영  
whydele@ls-sec.co.kr



해외채권/크레딧  
Analyst 박지빈  
jibin@ls-sec.co.kr



Weekly

TGIF

Trend, Geopolitical,  
Indicators on Fridays

Vol. 184

## 미국 성장률은 상승, 내용은 부실

### Contents

Point 1.	Macro Weekly	3
Point 2.	Chart of the week	4
Point 3	다음 주 금융시장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지표	5
Point 4	Global FX Monitor	6
Point 5	Global Macro Monitor	8
Point 6	Global Bond Monitor	10



## Macro Weekly

### Macro Comment

#### 미국 성장률은 상승, 내용은 부실

- 6월 25일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2.1%를 기록하면서 잠정치인 1.6%를 큰 폭으로 상회.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기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일부 부정적인 효과 확인. 경제성장률 상향의 가장 큰 요인이 수입 감소에 의한 순수출 증가율 상승에 기인. 수입증가율은 연율로 잠정치 21.1%에서 확정치 11.8%로 급락. 이는 무역통계에 대한 연례 업데이트의 결과로 수치상 기여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 오히려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소비가 잠정치 1.4%에서 확정치 0.5%로 하락했다는 부분. 여기에 더해 민간투자도 일부 상향되기는 했지만 4월 30일에 발표된 속보치인 8.7%(확정치 7.9%)에는 못 미치는 수치로 4월 민간투자 기대감 대비 하락한 수준. 7월 경기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ADP고용자수 변동이 발표됐는데 5월 12만 2천명 대비 하락한 9만 8천명으로 발표. 10만 명을 하회했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교육/헬스, 무역/운송/창고 등 서비스업의 고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1월부터 이어온 경기의 구조적 둔화 가능성이 지속되는 모습

### 다음 주 주요 이벤트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7/6~)

7월 6일부터 달러-원 외환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24시간 체제로 전환될 예정.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접근성 개선 조치의 일환.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나 시장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의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접근성 미충족으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어 왔음. 거래시간 확대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 개선이 기대됨. 특히 NDF 중심으로 형성되던 야간 원화 가격을 국내 현물시장으로 일부 흡수하는 효과 전망. 다만, 시행 초기 야간 시간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이벤트에 따라 야간시장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 하지만 제도 정착 이후 서울장 개장 시 환율 갭 축소, NDF-현물 간 괴리 완화 등 변동성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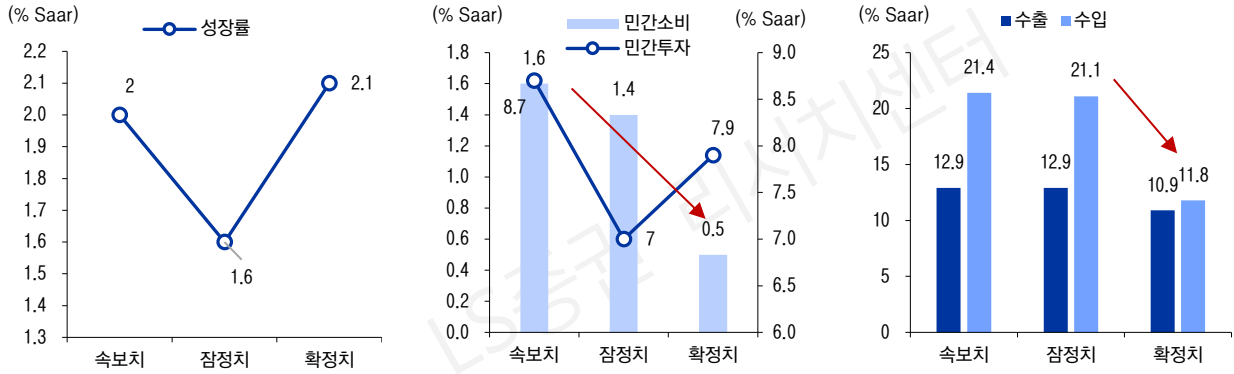
#### 2026 NATO 정상회의 (7/7~8)

2026년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 베슈테페 대통령궁에서 제 36차 NATO 정상회의가 개최됨. NATO 32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①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 목표 경로, ②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③방위산업 혁신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14년 NATO 정상회의에서는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는데, 2025년 기준 31개 회원국(아일랜드 제외) 모두 해당 목표치를 달성. 다만 5% 목표 달성에 대해 부정적 주장 존재. 유럽 내 재정여력이 부족한 국가들 또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어려운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 국방 지출 목표 수립을 위해 재정 취약국 중심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다면, 해당 국가들의 장기물 국채 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Chart of the Week

그림1 미국 경제성장률 확정치 분해












자료: CEIC, LS 증권 리서치센터

### Macro

- 미국 1분기 GDP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0.5%p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 시간이 흘러 단순히 성장률의 흐름으로 판단했을 때 경기의 회복 측면으로 접근이 될 가능성 존재. 다만 세부 항목의 변화를 따져봤을 때 이번 확정치에서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
- 경제성장률 상승의 배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 것은 통계 보정에 따른 수입증가를 급감(순수출 증가). 추가적으로 민간소비의 감소가 눈에 띄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주식시장 매도로 인한 수수료 감소 효과가 상당부분을 차지

그림2 일본은행 정책 심의위원 변화와 6월 금융정책위원회 주요 의견에서 확인된 정부의 견제

위원	임기	위원	임기	위원	임기
 우에다 카즈오(총재) 총립	2023.4.9 ~2028.4.8	 타카타 하지메 타카파	2022.7.24 ~ 2027.7.23	 마스 카츠유키 야칸/노파	2025.7.1 ~2030.6.30
 우에다 신이치(부총재) 총립	2023.3.20 ~2028.3.19	 타무라 나오키 타카파	2022.7.24 ~ 2027.7.23	 아사다 토이치로 리파레	2026.4.1 ~2031.3.31
 히미노 료조(부총재) 총립	2023.3.20 ~2028.3.19	 코에다 준코 야칸/타카파	2025.3.26 ~2030.3.25	 사토 아야노 리파레	2026.6.30 ~2031.6.29

자료: 日本銀行, LS증권 리서치센터

#### [재무성]

- 일본은행이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위한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기대 → **독단적인 결정은 지양하길 바람**
- 제안 내용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길 바라나, 금리 변경에 대해 시장 등에 정책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번 변경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길 바람. 국제 매입은 시장 동향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기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람 → **시장 변동성 확대되지 않도록 간접적인 변경 자체 바람**

#### [내각부]

- 이번 인상에 대해 설명 책임 다함과 동시에, 과도한 경기 변동 발생 시 주체적이고 적절한 대응 중요. 향후 성장 중심 경제로의 변화가 중요하며, 총수요·총공급 동향과 물가 관계 신중히 확인 필요 → **물가 상승 동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필요**
- 국제 매입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축소가 가져올 거시적 영향 확인,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 필요**
- 앞서 언급한 내용을 비롯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위기 관리 및 성장 투자 등의 노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정책 운영 기대 → **금리 인상 지속 견제**

### Bond

- 리플레파(정부의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로 알려진 사토 아야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교수, 6월 30일부터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시작. 지난 6월 금융정책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반대한 아사다 토이치로 위원 역시 리플레파
- 지난 6월 24일에 공개된 6월 금정위 주요 의견에서 재무성과 내각부는 정책금리 인상 및 향후 추가 정책 정상화 기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경계하면서 추가 인상을 견제하고 있음이 확인됨
- 강력한 매파 성향을 가진 위원들(타카타 하지메, 타무라 나오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6개월 ~ 11개월)를 고려하면 일본은행의 추가 인상 여력은 대략 1~2회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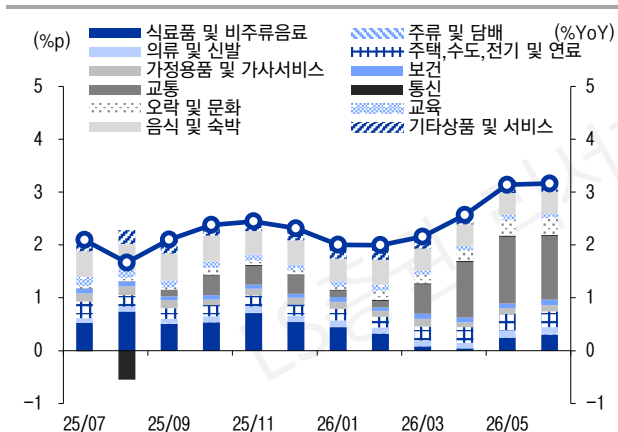
## 다음 주 금융시장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지표

표1 주요 경제지표

날짜	국가	지표	예상	발표	이전
06/30	중국	제조업 PMI	50.1pt	50.3pt	50pt
06/30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94.4pt	91.2pt	90.6pt
07/01	한국	수출 (YoY)	60.9%	70.9%	53.4%
07/01	중국	레이팅독 중국 제조업 PMI	52pt	51.7pt	51.8pt
07/01	유럽	S&P 글로벌 유로존 제조업 PMI	51.3pt	51.4pt	51.3pt
07/01	유럽	CPI (YoY)	3.0%	2.8%	3.2%
07/01	미국	ADP 취업자 변동	120k	98k	122k
07/01	미국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55.7pt	53.9pt	55.7pt
07/01	미국	ISM 제조업지수	53.9pt	53.3pt	54pt
07/02	한국	CPI (YoY)	3.2%	3.2%	3.1%
07/02	미국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113k	--	172k
07/02	미국	실업률	4.3%	--	4.3%
07/06	독일	공장수주 (MoM)	--	--	-3.8%
07/06	미국	ISM 서비스 지수	54.2pt	--	54.5pt
07/07	독일	산업생산 SA (MoM)	--	--	0.4%
07/07	미국	무역수지	-\$78.8b	--	-\$55.9b
07/08	일본	BoP 경상수지	¥4146.9b	--	¥3907.8b
07/08	미국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	--	0.0%
07/09	중국	PPI (YoY)	--	--	3.9%
07/09	중국	CPI (YoY)	--	--	1.2%
07/09	미국	기존주택매매	4.24m	--	4.17m
07/10	일본	PPI (YoY)	6.9%	--	6.3%
07/10	독일	CPI (YoY)	--	--	2.3%
07/10	독일	CPI EU 종합 (YoY)	--	--	2.4%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한국 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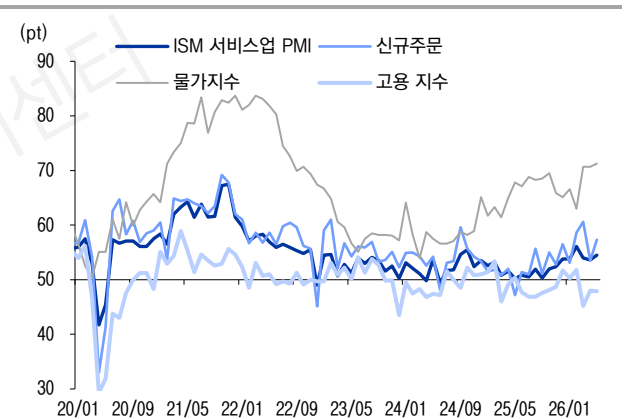


발표치: 3.2%, 예상치 3.2%, 이전치 3.1%

- 6월 한국 CPI 상승률은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석유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농축수산물 역시 축산물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해 오름폭 확대
- 한국은행 이치호 조사국장,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해 당분간 높은 물가 레벨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미국 ISM 서비스업 PMI



예상치 54, 이전치 54.5

- 5월 ISM 서비스업 PMI는 2024년 6월 이후 확장세 지속하며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견조한 신규수주 및 재고 등에 기인
- 세부 항목 중 물가지수는 2월 이란전쟁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높은 레벨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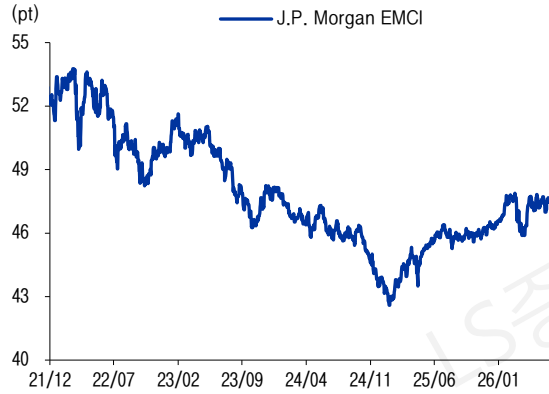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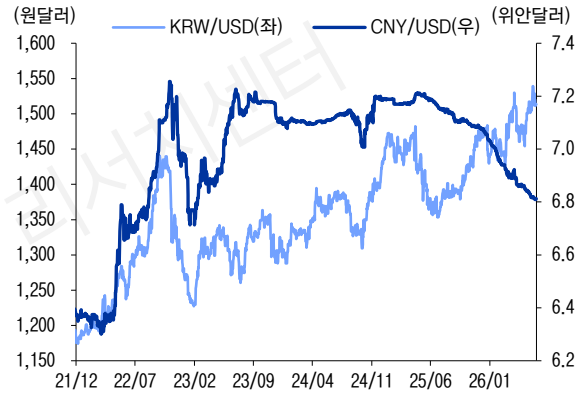
## Global FX Monitor

그림9 J.P. Morgan EM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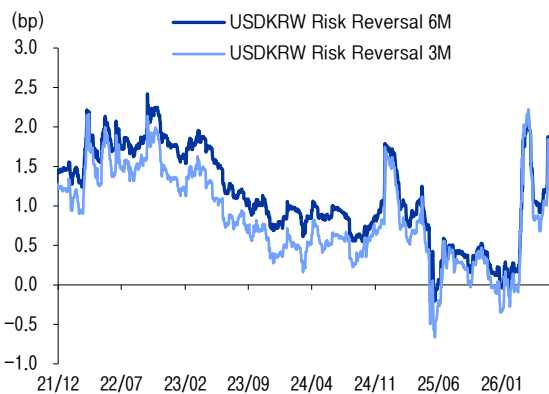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원달러/위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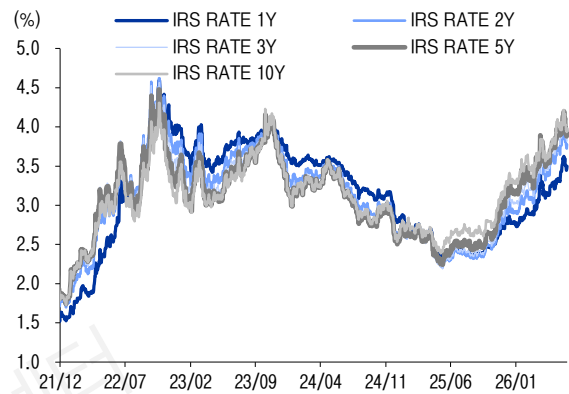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USDKRW Risk Reversal 6M/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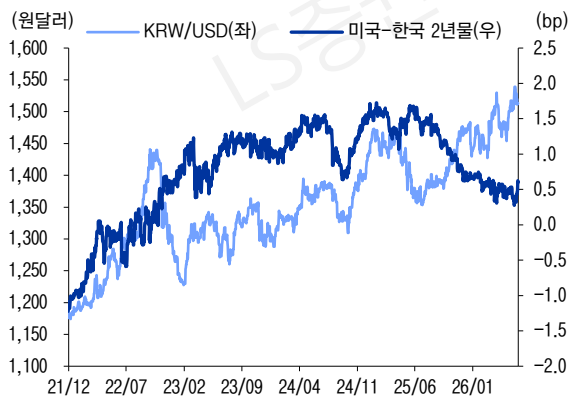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IRS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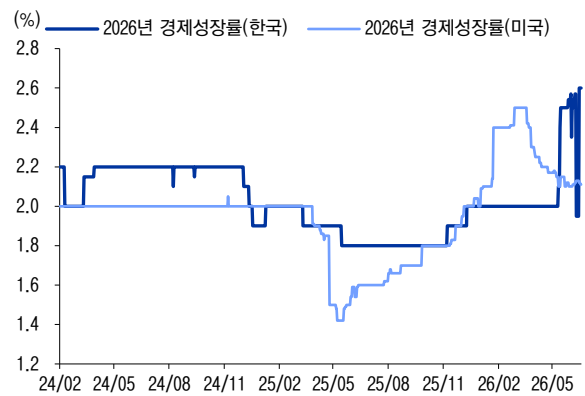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한미 금리차/원달러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한국/미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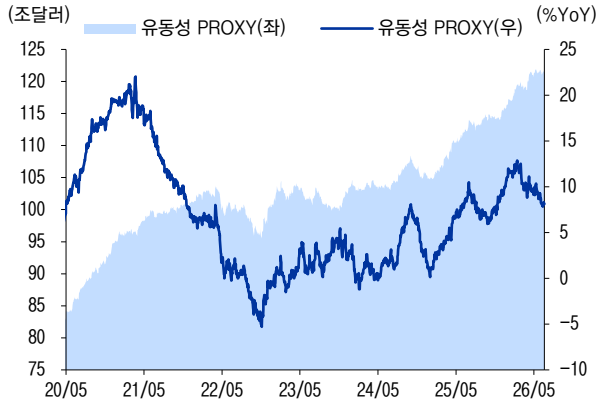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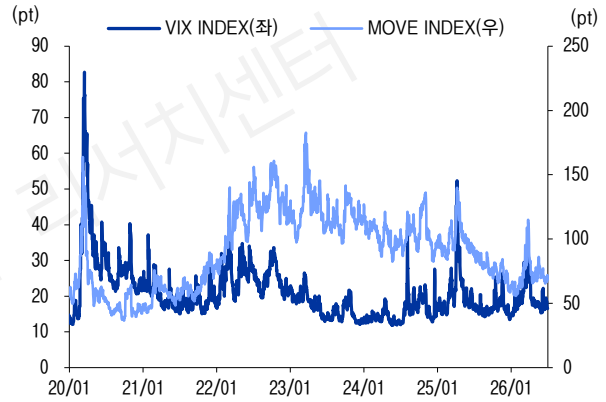
## Global Macro Monitor

그림15 유동성 지수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변동성 지수(VIX, MOV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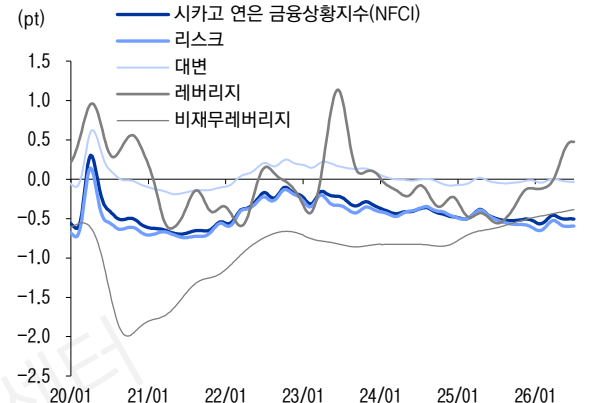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MBA 주택용자신청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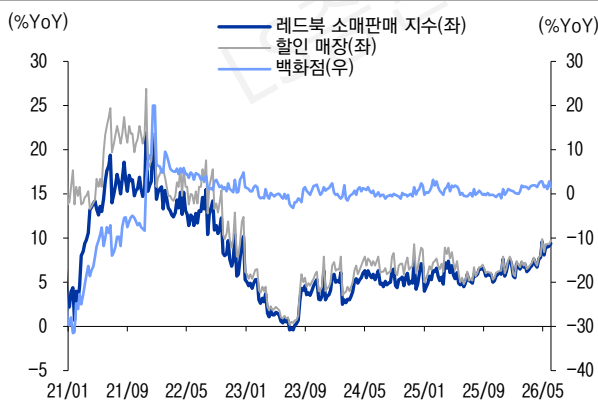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금융상황지수(NFCI)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Fed Watch 금리 인하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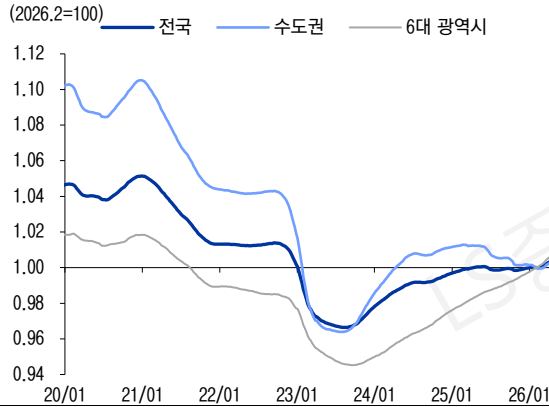
MEETING DATE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450-475	475-500	500-525
2026-07-29	0.0%	0.0%	0.0%	82.4%	17.6%	0.0%	0.0%	0.0%	0.0%	
2026-09-16	0.0%	0.0%	0.0%	46.8%	45.6%	7.6%	0.0%	0.0%	0.0%	
2026-10-28	0.0%	0.0%	0.0%	33.3%	45.9%	18.6%	2.2%	0.0%	0.0%	
2026-12-09	0.0%	0.0%	0.0%	23.5%	42.2%	26.6%	7.0%	0.6%	0.0%	
2027-01-27	0.0%	0.0%	0.0%	18.7%	38.4%	29.8%	11.0%	2.0%	0.1%	
2027-03-17	0.0%	0.0%	0.0%	15.0%	34.5%	31.5%	14.7%	3.7%	0.5%	
2027-04-28	0.0%	0.0%	10.1%	28.2%	32.5%	20.2%	7.3%	1.5%	0.2%	
2027-06-09	0.0%	0.0%	4.9%	18.8%	30.3%	26.6%	14.0%	4.5%	0.9%	0.1%
2027-07-28	0.0%	0.0%	4.3%	17.3%	29.0%	27.0%	15.4%	5.6%	1.3%	0.2%
2027-09-15	0.0%	1.3%	8.2%	20.8%	28.4%	23.5%	12.4%	4.3%	1.0%	0.1%
2027-10-27	0.2%	2.3%	10.1%	21.9%	27.6%	21.8%	11.2%	3.8%	0.8%	0.1%
2027-12-08	0.4%	3.1%	11.2%	22.5%	27.1%	20.8%	10.5%	3.5%	0.8%	0.1%

자료: CME Group,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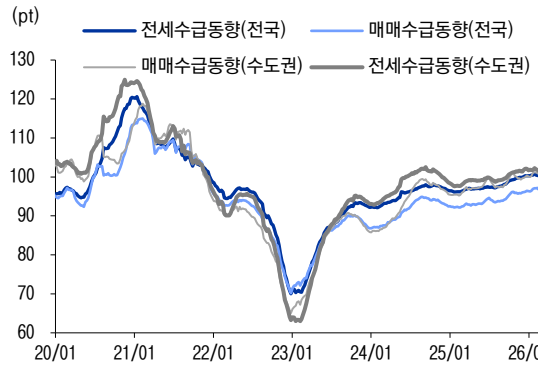
## Global Macro Monitor - 한국 부동산

그림21 아파트 전세/매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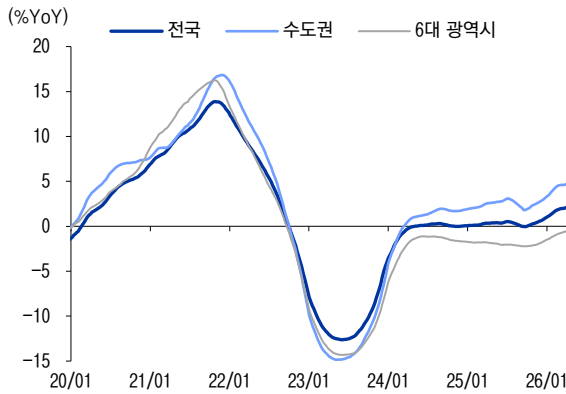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아파트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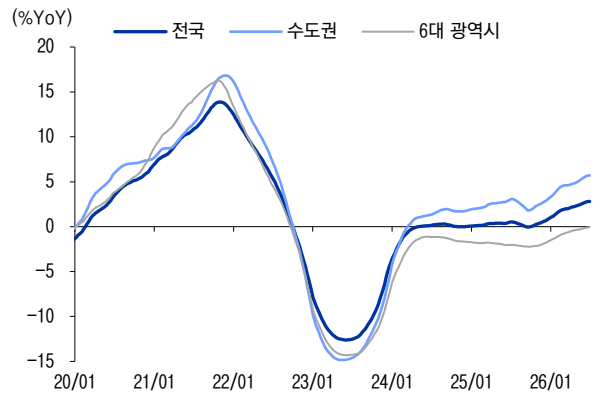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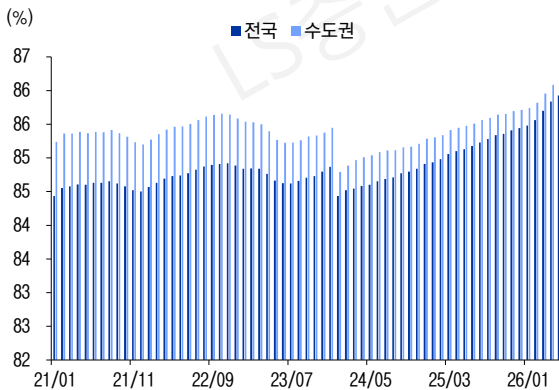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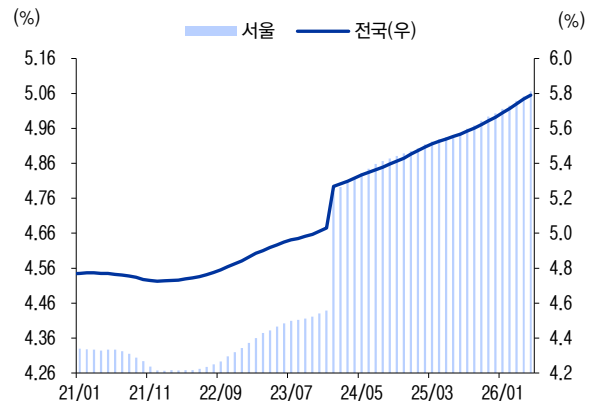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월간 오피스텔 전세/매매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월간 오피스텔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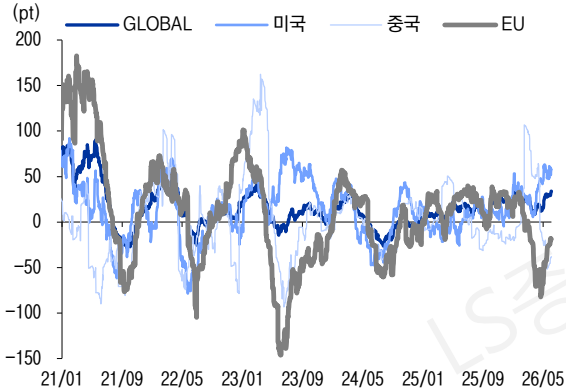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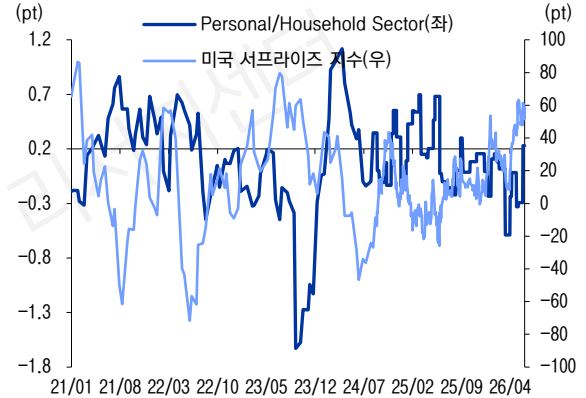
## Global Macro Monitor - 서프라이즈 지수

그림27 글로벌 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Personal/Househ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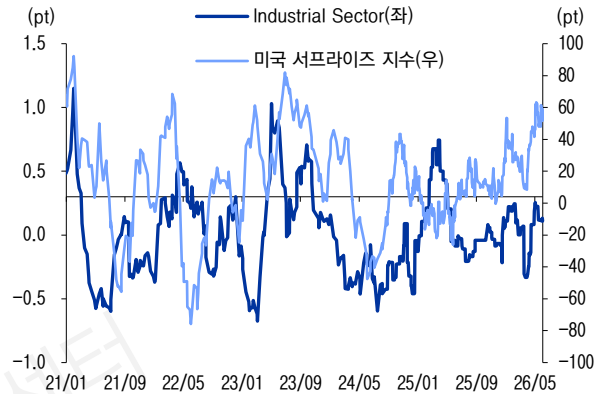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La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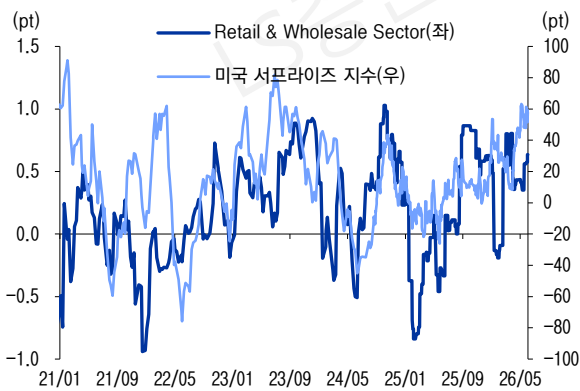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Indus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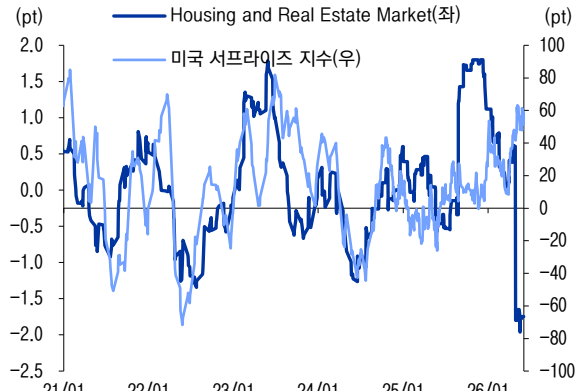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Retail&Wholesal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 Housing and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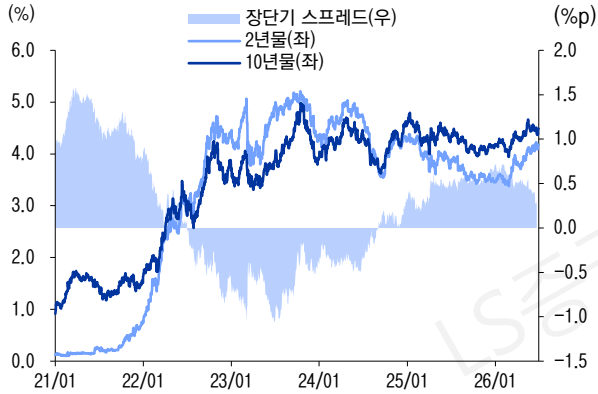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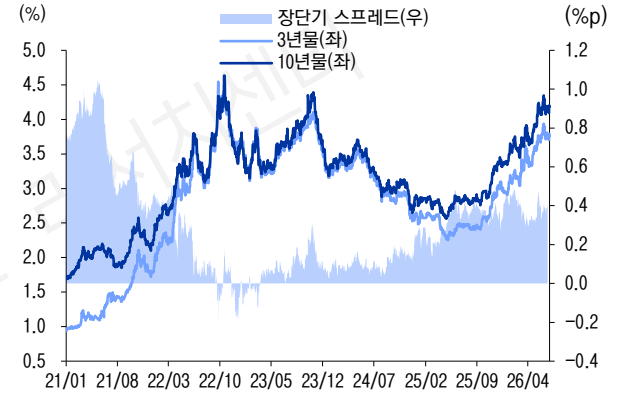
## Global Bond Monitor – 국제 수익률과 스프레드

그림33 미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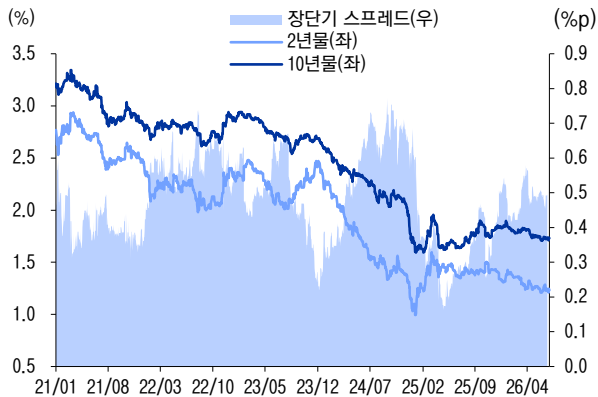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한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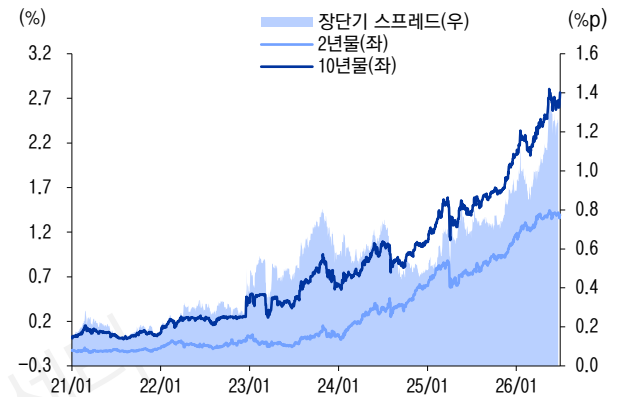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중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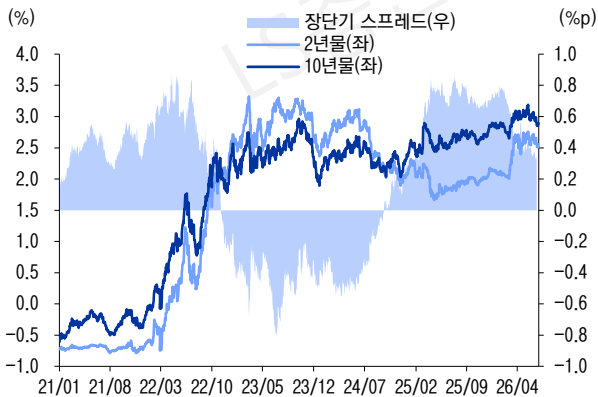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일본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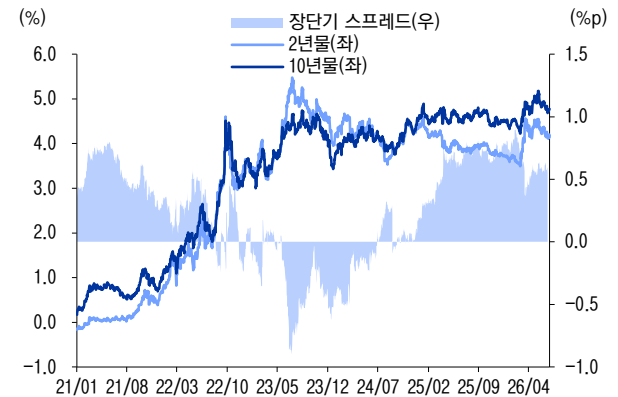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독일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영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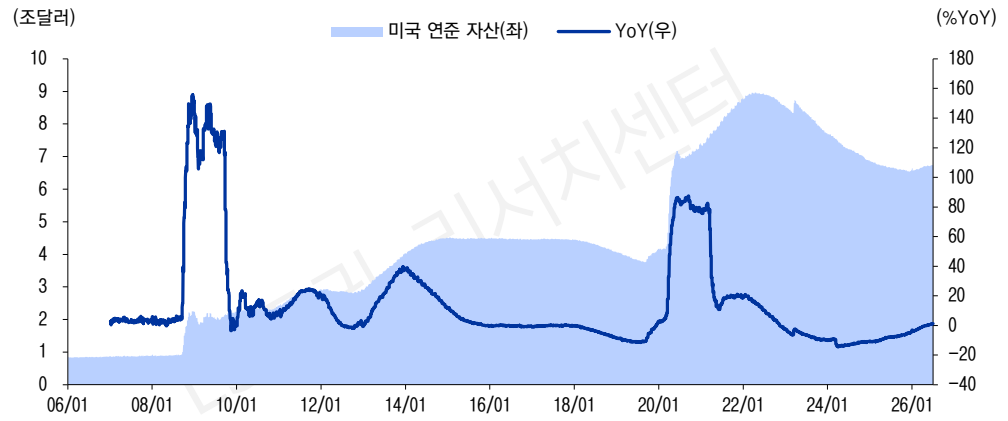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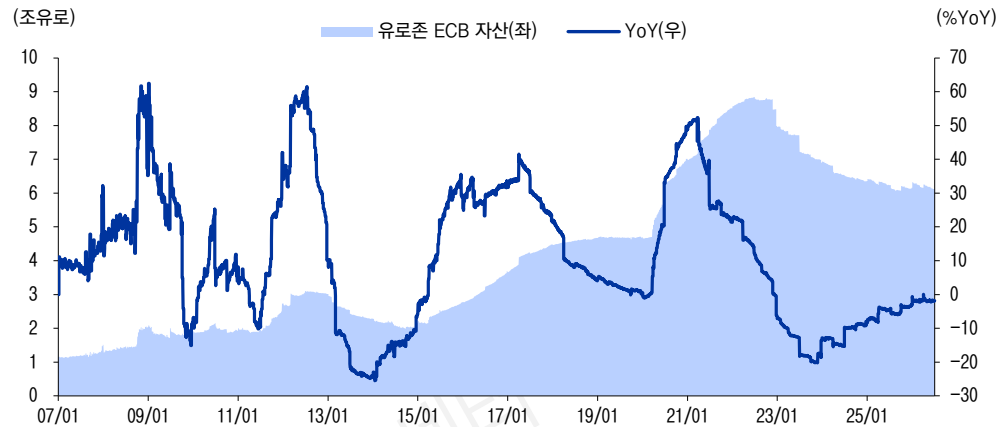
## Global Bond Monitor –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그림39 미국 연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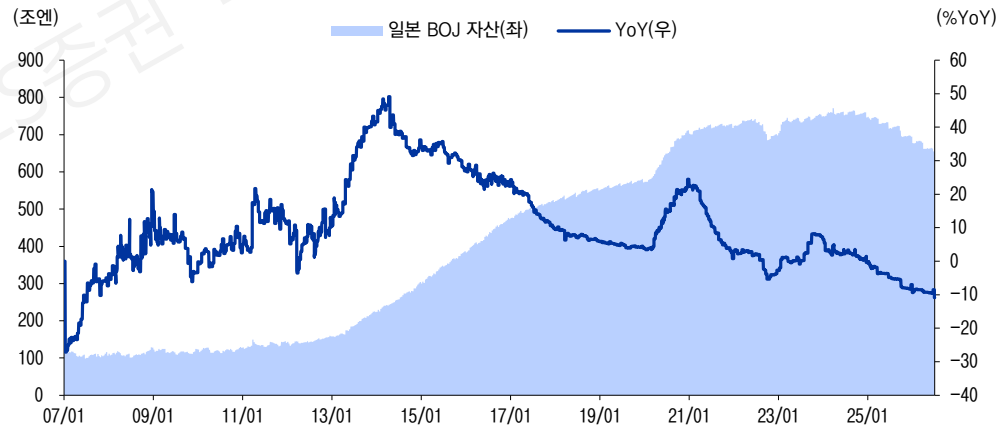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유로존 ECB 자산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일본 BOJ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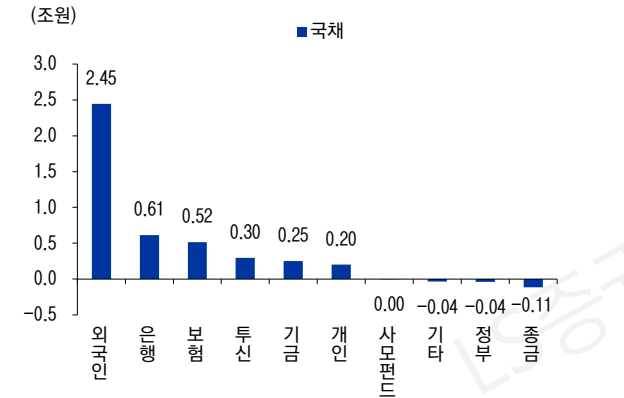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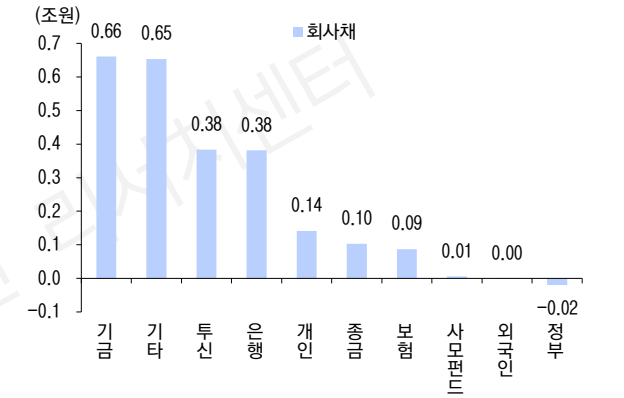
## Global Bond Monitor – 한국 채권시장

그림42 국채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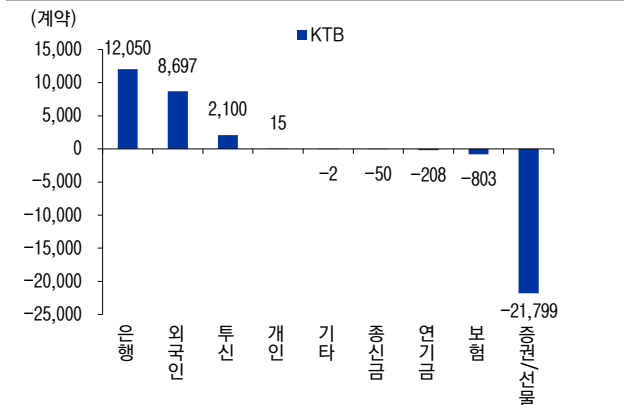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회사채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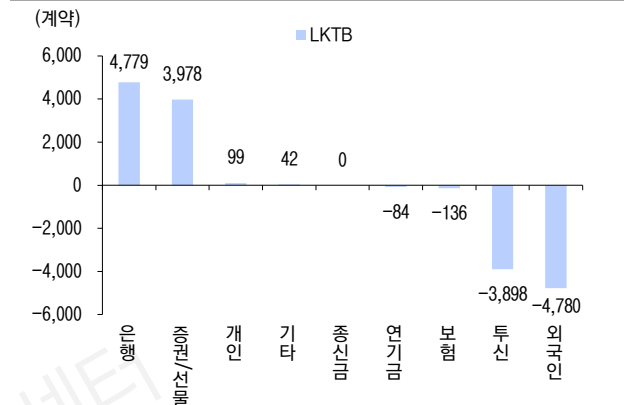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KTFB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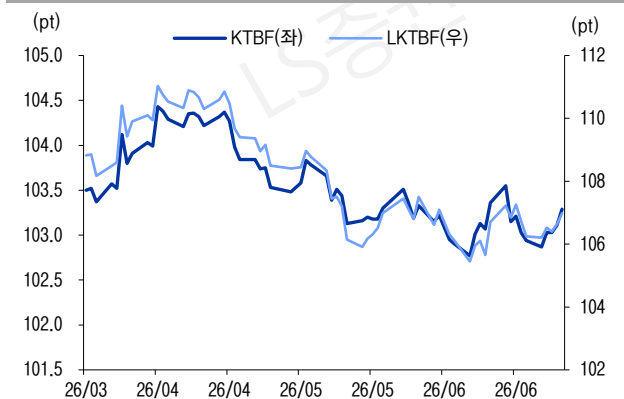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LKTBF 주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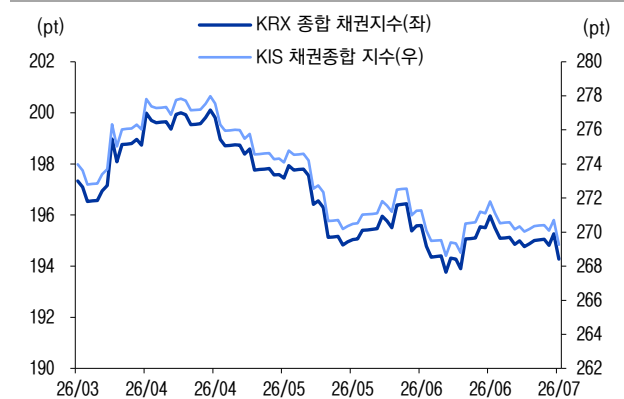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KTFB와 LKTBF 가격 추이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한국 채권시장 주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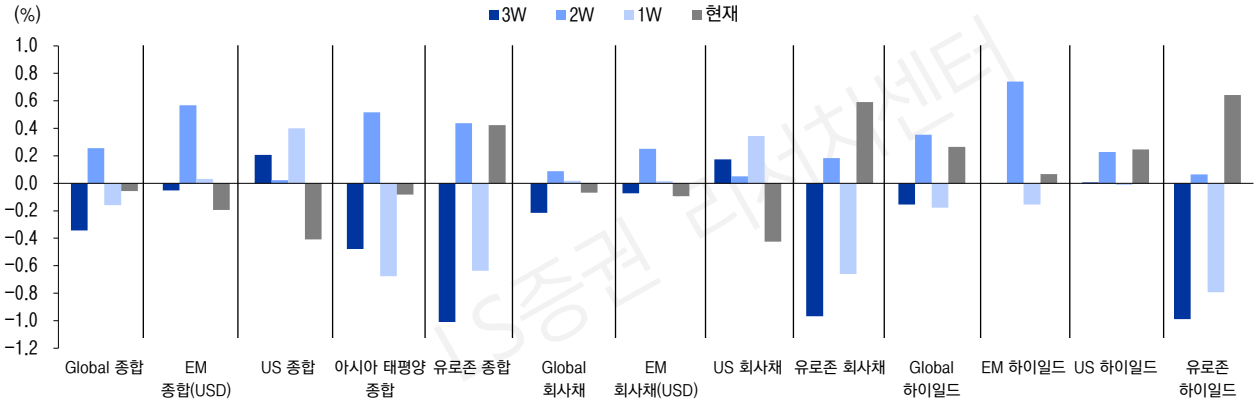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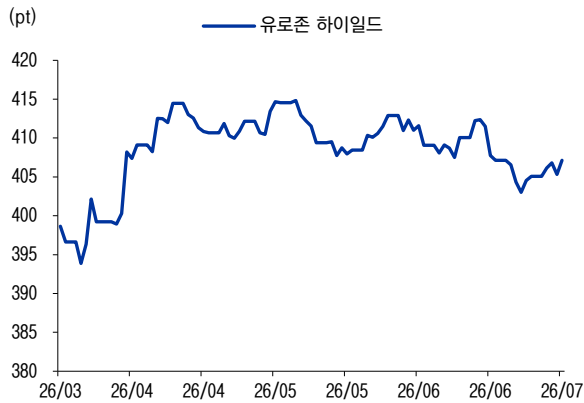
## Global Bond Monitor – 글로벌 채권시장

그림48 Bloomberg Barclays 채권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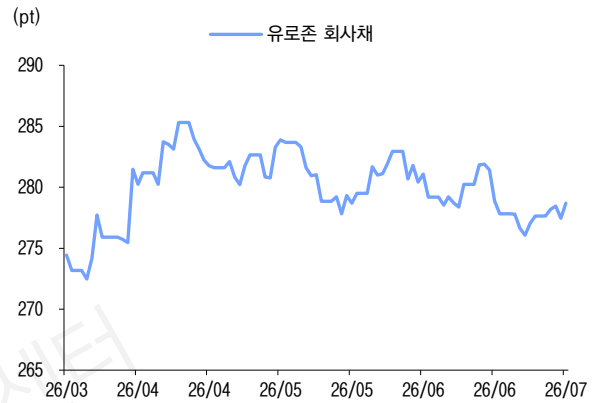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Bloomberg Barclays 유로존 하이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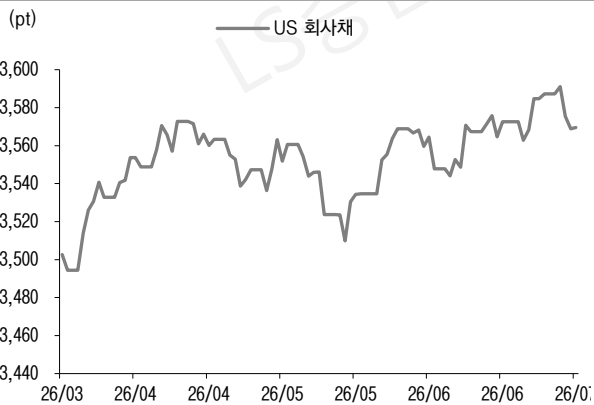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Bloomberg Barclays 유로존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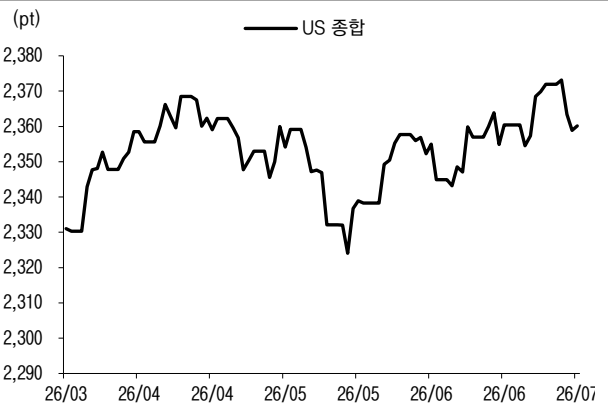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Bloomberg Barclays US 회사채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Bloomberg Barclays US 종합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광혁, 우혜영,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